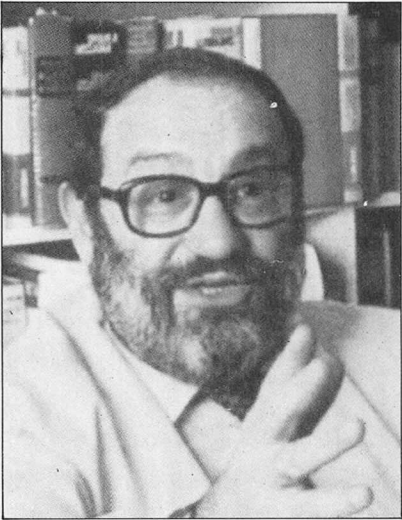


# 유쾌히 즐길만한 知的 놀이마당

움베르토 에코 지음 「푸코의 추」

이윤기

소설가



움베르토 에코

에코... 흡사 '메아리'의 요정 이름같이 짝막한 이 '에코'가 이제 한국의 독자들에게는 상당히 귀에 익은 이름이 되었다. 필자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 이름을, 아주 잘 읽히는 이탈리아 소설가의 이름으로, 손 코네리가 주연하는 살짝 007 같은 영화 「장미의 이름」의 원작자 이름으로 기억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뿐만 아니다. 필자는 몇가지 사실을 더 알고 있다. 이름은 짝막하지만 사실 이 에코라는 사람은 요약하기가 그리 간단하지 않다는 사실, 이 만만해보이는 소설가가 역자와 편집자들을 몹시 괴롭히는 소설가이면서도, 독자들을 아주 즐겁게 만들어주는 데는 조금도 인색하지 않은 소설가라는 사실이다. 이렇듯이 자신만만하게 말하는 데는 까닭이 있다. 사실은 필자가 바로 이 에코라는 소설가의 「장미의 이름」과 「푸코의 추」를 우리말로 번역한 장본인이기 때문이다.

## 신화와 종교, 그리고 인간

에코는 1923년 이탈리아에서 태어난 세계적인 기호학자인 동시에 철학자, 역사학자, 미학자로 평가받는 볼로냐 대학교수, 토마스 아퀴나스의 철학에서부터 개인용 컴퓨터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에 걸쳐 엄청난 지식을 쌓은 박학, 모국어인 이탈리아어는 물론이고, 영어, 프랑스어는 무불통달, 심지어는 독일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라틴어, 그리스어까지 쓰고 말하는 지독한 공부벌레이자 언어의 천재다. 그는 철의 장막 이쪽저쪽을 가리지 않고 수십 개 대학에서 강의한 바 있는 교수이기도 하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관심하는 것은, 그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이 대단한 지적 자산이 그의 소설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느냐, 하는 것이다.

많은 독자들의 상상과는 달리 이 책의 제목에 나오는 '푸코'는, 요즘 들어 부쩍 유명해진 프랑스의 구조주의 철학자인 미셸 푸코가 아니고 추(振子)를 이용하여 지구가 자전한다는 과학적인 사실을 밝혀낸 프랑스의 물리학자 장 베르나르 푸코다. 에코가 '푸코의 추'라는 상징적인 장치를 통해 우리에게 전하려는 메시지는 이렇다. 현대를 사는 우리는, 인공위성을 내려다보고 확인하지 않고도 지구가 23.5도 기울어진 지축을 골대삼아 자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지구가 자전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려 인공위성을 타고 우주로 날아올라갈 필요는 없다. 우리에게 그럴 필요가 없어진 것은, 푸코가 자신이 만든 추의 단진자운동을 통하여 지구가 자전하고 있음을 실증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푸코가 단진자로서 지구가 자전한다는 것을 실증했듯이, 어떤 관념적인 장치로 신화의 구조, 秘敎의 구조를 규명할 수는 없을까? 이렇게 신화와 종교를 규명하면, 하나의 절대점에 매달려 영원히 단진자 운동을 계속하는 신화와 종교의 모습이 곧 인간의 모습인 것은 아닐까? 「푸코의 추」라는 소설은 이러한 관념적인 가정에서 출발한다.

## 찾아보기가 필요한 백과사전적 탐정소설

이 소설은, 외인부대 출신 사기꾼인 아르덴티 대령이 밀라노에 있는 가라몬도 출판사에 이른바 '원자폭탄 이상의 가공할 파괴력을 지닌, 저 유서깊은 성당기사단 음모에 관한 암호 메시지'를 가져오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영터러 시인, 뜨내기 학자들이 쓴, 허접쓰레기 같은 심령현상학 관계 원고를 무수히 손질해온 재기넘치는 편집자 삼총사는 이 사기꾼(혹은 과대망상증환자)의 말을 듣고 장난을 좀 치기로 한다. 비밀결사인 성당기사단의 전설에 삼총사가 지어낸 암호 메시지를 슬쩍 끼워넣기로 한 것이다. 가령 지하계에 사는 위대한 창조주 이야기, 영생불사하는 생체메트릭 백작 이야기, 대 피라미트의 도량형 단위에 감추어져 있는 태양계의 엄청난 비밀 이야기 등을 슬쩍 끼워넣는 것이다. 이렇게 되자 믿어지지 않는 일들이 벌어진다. 성당기사단을 신봉하는 광신도들이 이들의 말을 믿고, 이들이 가지고 있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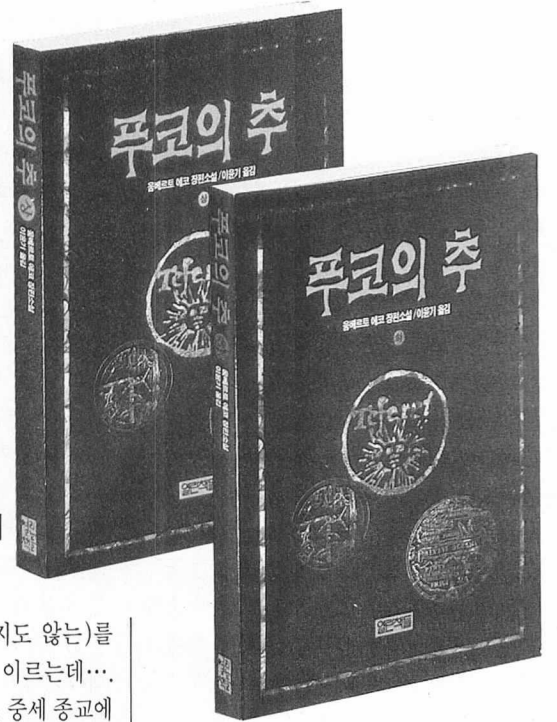
지난 여름 경주에서 만난 스위스인 음악교수와 미국인 교사는 에코의 이 책에 대해 "속속들이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우리는 에코의 지적인 놀이마당을 충분히 즐기려고 애썼다"라고 말했다. 반면 이 책의 한국어판을 교정한 편집자들은, 마지막 교정지가 넘어가던 날 "에코, 푸코, 사이코..." 이런 농담을 하면서 한숨을 쉬었다고 한다.

주장하는 비밀의 열쇠(존재하지도 않는)를 빼앗기 위해 음모를 꾸미기에 이르는데... 이 과정에서 에코는 고대 종교 및 중세 종교에 박식한 학자답게 갖가지 종교의 관념, 상징 및 개념은 물론 첨단과학기인 컴퓨터 용어, 영화 주인공, 만화 주인공의 이름에 이르기까지 종횡무진으로 구사한다. 유럽의 평론가들이 이 소설을 두고, '백과사전적인 탐정소설' '찾아보기가 필요한 소설' '정보의 집적물'이라고 부르는 것도 바로 이 소설이 지닌 이러한 면모 때문이다.

그러나 「장미의 이름」에서, 목적이 수단을 신성하게 할 수 있으나, 악마는 물질로 되어 있는 권능이 아니라 의혹이 없는 믿음 그것이 바로 악마가 아니냐는 질문을 제기하던 에코는 이 「푸코의 추」에서도 우리에게 예사롭지 않은 물음을 던진다. 천국이니, 지옥이니, 극락이니, 重生이니 하는 종교관념은 우리가 이런 것을 믿는 순간부터 존재하고 시작하는 것은 아닐까, 이러한 믿을거리가 제공되는 것은 이런 것이 기술되는 순간이 아닐까, 하는 물음이 그것이다. 벨보가, 존재하지도 않는 비밀의 열쇠, 편집자 세 사람의 상상력 속에만 존재하는 그 비밀의 열쇠 때문에 죽음을 당하는 대목에서 우리는 에코가 분명히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인상을 받는다. 에코는 어쩌면 '모든 것은 로고스로부터 시작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 "에코, 푸코, 사이코..."

지난 여름 필자는 경주에서, 영어판 「푸코의 추」를 읽었다는 스위스인 음악교수, 읽고 있다



는 미국인 교사를 만나 이 책의 영어판이 안고 있는 문제에 관해 이야기를 나눈 바 있다. 이 책의 영어판이 안고 있는 문제란 다른 것이 아니고, 이 소설을 이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수많은 히브리어, 라틴어, 프랑스어, 독일어, 포르투갈어를 대부분 영어로 번역하지 않고 그대로 실고 있다는 점이다. 필자가 영어판의 그러한 점을 문제로 삼은 것은 영어권 독자들 가운데 그정도 필롤로지의 소유자들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이다. "속속들이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우리는 에코의 지적인 놀이마당을 충분히 즐기려고 애썼다"는 이들의 말은 필자를 우울하게 했다.

이 책의 한국어판을 교정한 편집자들은, 마지막 교정지가 넘어가던 날, "에코, 푸코, 사이코..." 이런 농담을 하면서 한숨을 쉬었다고 한다. 이책이 편집자를 그만큼 괴롭혔다는 뜻일 수 있겠지만, 영어권 독자에 견주면 우리 독자들은 그래도 운이 좋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우리 독자들에게는 이렇게 한숨을 쉬어주는 편집자가 있으므로.